

## 初 夏 隨 想

74년 초여름 어느 토요일 낚시광이라고 자처하는 직장 동료가 어찌나 풍을 치던지 그 친구의 꼬임에 빠져 자의반 타의반 해서 동대문 근처의 어느 낚시에게 가 가방 살림망 낚시대등 기본 도구를 샀다.

그로부터 10여년간 낚시를 한셈이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어도 한번은 변했을 것이고 글을 읽었어도 과거에 급제라도 할법이고 도를 닦았어도 법열의 경리에 이를법 한테 필자는 여지껏 낚시에 대하여 이야기 할것도 없고 이야기 할 체험을 한것도 없다. 물론 월척도 해본일이 없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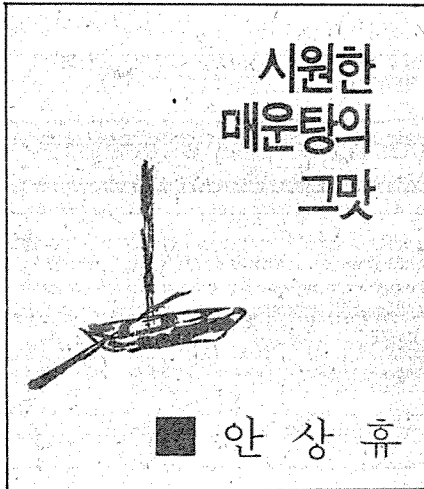
데도 공휴일만 되면 오금이 저리고 좀이 쑤셔서 집에 앉아 있을수가 없으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낚시에 한번 맛을 붙인 사람이 시간만 있으면 만사 제쳐두고 낚시터를 찾는 이유로 몇가지 낚시만이 갖는 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낚시는 떠나기전에 낚시대를 점검하고 줄을 갈고 찌를 맞추고 낚시바늘과 납봉 등이 넉넉한지 살펴보고 있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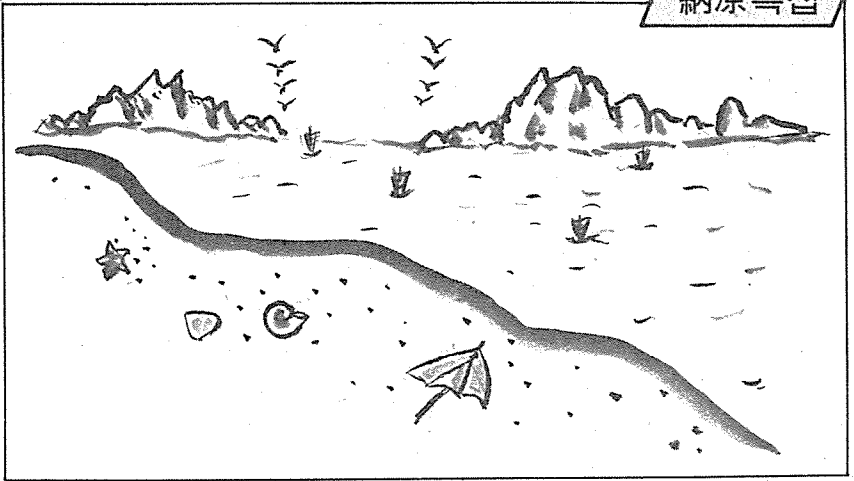
라면 마음은 벌써 낚시터에 가있다. 수초가 보이고 제방이 있고 물가운데 만들어 놓은 좌대가 보인다. 어디가 포인트 일까 이런 생각을 하노라면 빨간찌가 수욕 올라온다. 다음 순간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있다. 비록 내일은 두세치짜리 붕어 몇마리로 만족할망정 마음은 언제나 푸짐하게 부풀게 마련이다. 저수지에

에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 찌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세상만사 온갖 잡다한 일들이 봄바람에 봄눈 녹듯이 사라져 간다. 이곳에서만은 사무실의 복잡한 일들을 생각지 않게되고 내일 다칠 자질구레한 일들을 잊을 수 있으며 어제 있었던 친구와의 언짢았던 생각도 잊게 된다.



파아란 하늘아래 푸른 산으로 둘러쌓인 저수지가의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발밑에 모여드는 송사리떼에게 떡밥이라도 뿌려주며 가물치 첨병대며 헤엄치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덧 살갗은 까맣게 타서 감기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행히 입질이라도 왕성해지면 하루해가 짧게만 느껴진다.

저녁나절 묵직한 고기바구니라도 들고 집에 돌아와 더운물에 목욕하고 한숨푹



자고나면 그야말로 매사에 능률이 절로 난다.

꾼들 중에는 잡은 고기를 놓아 주거나 남에게 주고가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물고기는 비린내가 나서 먹지 못한다고 한다. 그것은 요리기술 부족이지 결코 다른 고기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나서 그런것은 아니다. 세상에 비린내 나지않는 고기가 어디 있는가?

필자는 여러 종류의 생선을 먹어 보았지만 민물고기 매운탕 처럼 얼큰하고 시원하며 감칠맛이 나는 매운탕을 먹어 본 일이었다. 가진 양념에 잘끓인 매운탕 거기다 소주라도 한잔 곁들이면 이 세상 음식중 어디에 그런 별미가 있던가.

옛날 사람들은 낚시를 할일없는 늙은이나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하는 소일거리쯤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오늘

날 날로 삭막해지며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인들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곳은 낚시가 그저 그만이다. 오늘도 나는 수초가에 앉아 찌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옛날 주(周)나라의 정치가 강태공(姜太公)은 위수(渭水)가에서 세월을 낚아 출세를 했다지만 나는 월척이나 기다려 볼 참이다.

〈필자=한일시청각교육개발원대표〉

